

GC녹십자웰빙 건기식 브랜드 ‘PNT’ 론칭

PNT, 기능별 개인 맞춤 영양 제공 ‘비타민D 5000IU’로 본격 마케팅 닥터피엔티 전용 온라인몰 리뉴얼 아모레, 건기식 구독 ‘꼬박배송’ 론칭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의 가장 큰 수혜분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지난해 2020년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요즘 건기식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는 개인 맞춤형 제품이다. 일명 ‘비스포크 건기식’으로 불리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은 초반 스타트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도했으나, 요즘은 건기식 사업에 제약이나 화장품계의 강자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GC녹십자 계열의 GC녹십자웰빙이다.

●PNT 론칭, 주현영 모델 마케팅 적극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은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최근 건기식 브랜드 ‘PNT’를 론칭했다. PNT는 연령별, 기능별로 맞춤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다. PNT라는 브랜드명은 ‘개인 맞춤형 영양치료’(Personalized Nutrition Therapy)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브랜드 첫 제품 ‘비타민D 5000IU’를 비롯해 현재 장, 혈액, 눈, 간, 다이어트 등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PNT를 론칭하면서 브랜드 모델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 SNL에서 좌충우돌 캐릭터의 인터넷자로 인기가 높은 주현영을 발탁했다. GC녹십자웰빙은 브랜드 모델 주현영이 출연하는 광고영상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

PNT 브랜드로 첫 출시한 ‘비타민D 5000IU’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활성 상태의 비타민D3 제품이다. PNT 제품은 공식몰인 PNT샵을 비롯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스토어, 11번가, 롯데온, 옥션, G마켓, CJ온스타일, GS SHOP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한다.

개인 맞춤형 건기식은 제품 소분판매 허용 등 정부의 유통 관련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빨라졌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못지않게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유통 플랫폼의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소극적 유통채널에 머물지 않고, 문진이나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 영양소 추천과 정

기구독 등을 제공하는 토틀 서비스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도 이번에 론칭한 PNT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건기식 브랜드 닥터피엔티(Dr.PNT)의 전용 온라인 몰(이하 피엔티몰)을 10월에 대대적으로 리뉴얼했다. 닥터피엔티는 영양치료를 오랜 경험을 가진 기능의학 전문가들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론칭했다. 대중적인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PNT와 달리 국내 2000여 개 병·의원에 있는 건기식 코너와 전용 온라인몰인 피엔티몰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리뉴얼로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건기식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소 추천 서비스 ‘마이웰스체크’다. 한국영양의학회 개인맞춤 영양소 평가자를 기반으로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완성한 문진 서비스다.

‘마이웰스체크’는 장건강, 소화 등 12개 카테고리의 문진, 식습관 및 생활습관 라이프스타일 문진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성분과 제품을 추천한다. 알레르기 등 위험 요소는 사전에 확



GC녹십자 계열 기업인 GC녹십자웰빙이 연령별, 기능별 맞춤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로 론칭한 PNT 브랜드 모델 주현영(왼쪽), 아모레퍼시픽이 시작한 건기식 브랜드 바이탈뷰티의 정기구독 서비스 ‘꼬박 배송’.

인해 해당 성분은 주의하도록 안내한다.

●아모레퍼시픽도 건기식 구독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제약업체 뿐만이 아니다. 뷰티업계의 대표기업인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자사몰 ‘아모레몰’을 전면 재편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력 분야로 건기식을 내세우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건기식 브랜드 ‘바이탈뷰티’ 제품을 묶어 정기구독 서비스인 ‘꼬박배송’을 론칭했다. 건기식은 아모레퍼시픽이 신규 먹거리로 집중 투자하는 분야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자로 선정됐다.

‘꼬박 배송’ 서비스는 배송 주기를 3개월 이내 한 달씩 선택할 수 있고 배송일자도 직접 고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고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韓제약바이오협회 한국형 ‘바젤론치’ 가동

“의약품 수출 활성화…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과 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위스 바젤론치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참여기업 모집한다.

‘바젤론치’는 스위스 바젤 주정부가 제약사, 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및 네트워킹, 사업 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바젤은 노바티스, 로슈 등 700여개 기업과 1000여개의 연구기관이 있는 유럽 제약기업의 근거지로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 연간 운용되는 R&D 투자 규모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전체 시장과 맞먹는 약 210억 달러(24조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하며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하거나 시장 타당성을 조사하려는 협회 회원회사 및 준회원이 대상이다.

고대의료원, 부영그룹서 의학발전기금 2억 기부 받아



신명호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려대의료원이 부영그룹으로부터 의학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받았다. 부영그룹은 2001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구입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생 장학금과 간호학과·정보관 건립기금,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운영기금 등에 200억 원 넘게 기부했다. 부영그룹이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첨단 의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9일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부영그룹 신명호 회장을 비롯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을 진행했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의료관광 협력기관 선정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사진)이 ‘2022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관광재단에서 3년마다 심사해 선발하는데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2019년에 이어 연속 선정됐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2016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난임센터로 오픈했다. 연간 8000건 이상의 시험관 시술이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연구소를 갖췄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을 찾았다.

자생한방병원, 美 아칸소 의대와 ‘AJA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21일 설립자 신준식 박사1부 기조강연 ‘자생력 증강 위한 의학’ 주제로 진행



자생한방병원은 21일 ‘자생력 증강을 위한 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21 AJA(Annual Jaseng Academic)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집합 저항력을 미리 높이는 예방의학과 현대 의학의

부족한 점을 한의학 등 다른 의학체제로 보완하는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AJA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자생한방병원과 미국 아칸소 보건교육대학이 공동개최하며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운영한다. 대한한 의사협회와 미국 침구·동양의학 연방인증위원회(NCCAOM), 캘리포니아 침구위원회(CAB), 호주 중의학위원회(CMBA), 침구중의학위원회(AACMA)의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8월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으로부터 교육기관 정식

인증을 받으면서 미국, 캐나다 등 30여 개국 의사들이 행사에 참여해 보수교육 점수 취득이 가능해졌다.

1부는 ‘의료서비스에서의 자생력 증강’이란 주제로 진행한다. 기조 강연자로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나선다. 신 박사는 ‘통합의학적 치료법을 통해 살펴본 통증 치료에서의 자생력 회복 기전’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침치료의 미래’에 관한 학술세션 및 논제가 열린다. 캔자스시티대 의과대학 고담 데시가 교수가 ‘오스테오패틱 의학에서의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김재범 기자

종근당건강, 숙면 도움 ‘수면이지’ 출시



건강기능식품기업 종근당건강이 숙면 건강기능식품 ‘수면이지’(사진)를 출시했다. 숙면 건강을 위한 이중 기능성 제품으로, 우유에서 유래한 개별인정형 숙면 기능성원료 락티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L-테아닌을 주원료로 함유했다. 식약처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다. 감마 아미노뷰티르산(GABA), 마그네슘, 엽산, L-트립토판 등 배합된 부원료도 함유했다. 신체품 구매방법 등 상세정보는 1대1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1일 (목) 음력: 10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배가 뚫을 올리고 달랠가는 기운으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적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 매사에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뭘 뭘 뭘 하면서도 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다.	계절적으로는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을 때이다.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저녁노을이 산천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기운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일몰 직전의 찬란한 빛을 암시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함에도 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하늘이 움직이는 기운이다.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지나친 연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오늘은 이득이 발생하면 바로 손을 떼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보여도 내면에서는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거래상대가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키기가 중요하다. 오늘은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성공할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벅찬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고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옛날 나라에서 제향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오늘은 분쟁,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남비할 수 있는 날이다.						